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금통위 경계감 및 외인 증시 자금 유입 가능성에 하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78~1,388원

■ 미국 근원PCE물가 데이터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나,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매파적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강달러 흐름이 이어질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한편, 금일 예정된 8월 금통위에서의 추가 긴축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 향후 정책 경로와 경제전망 등을 통해 한은의 매파적 기조가 부각될 경우, 원화 강세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반도체 부문 성장 지속 기대에 힘입어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면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전일 동향 : 26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3.6원 오른 1,386.3원 마감**
장 초반, 미-이란 긴장 완화 기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1,380원대 초반으로 하락. 이후 달러 반등과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1,380원대 후반까지 상승한 뒤 1,384.8원에 주간 거래를 마칩.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끈적한 미 PCE물가 여파로 달러 강세 나타나자 추가 상승, 1,380원대 중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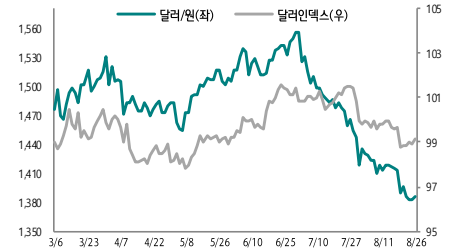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의 7월 PCE물가 지표 확인 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달러는 강세를 보임
- (유로-달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협상 국면 대신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는 약세로 전환
- (달러-엔) 시장 예상대로 미국 물가 및 성장을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연준 긴축 경계감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미-일 금리차 우려로 엔화는 약세를 보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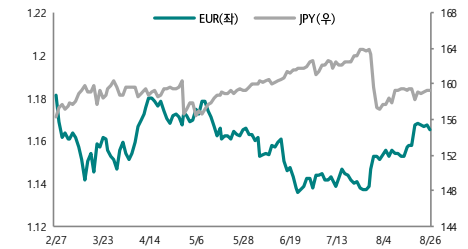
- 금일 개최될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연속 인상과 동결 전망이 혼재되어 있음. 현재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실질 소득 지표와 성장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임. 이로 인한 잠재적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2%를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연준의 통화정책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가계부채 부담 속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미칠 압박은 인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급 여건 개선과 글로벌 달러 약세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역시 연속 인상의 필요성을 다소 제한하는 부분임.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결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한은이 제시할 점도표와 수정 경제전망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금통위의 이번 메시지는 추가 긴축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전망의 경우 양호한 경기 흐름을 반영해 성장을 및 근원물가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정책 기조 자체는 상당한 매파적 선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최근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강화된 국면에서, 이러한 한은의 매파적 행보는 원화 가치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83.0	1,388.3	1,381.2	1,385.1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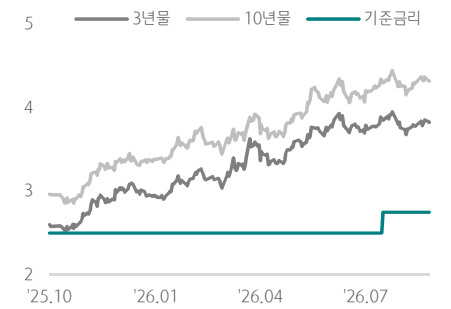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51	159.31	6.7224
전일대비	-0.0023	+0.11	+0.0053
재정환율	1,613.07	868.88	205.90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00	BOK 금리결정	3.00%	2.75%
15:00	독일 9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29.5	-29.6
21:30	미국 7월 도매재고(MoM)	0.2%	0.2%

한국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